

국제농업박람회, 3천만달러 수출협약 실계약 ‘총력’

내일까지 나주서 해외바이어 사후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특강·1대1 멘토링 등 지원
주의사항·선적 서류 준비 등 밀착 지도도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해외바이어 사후 수출컨설팅’을 개최한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3일 “지난 10월 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 거둔 3천304만달러(약 463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MOU) 성과를 실질적 수출 계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4·5일 나주 웨스턴 호텔에서 수출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협약 이후 복잡한 통관 절차와 국가별 규제 등으로 실제 선적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수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계약 이행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상담회 당시 수출협약을 한 24개 수출기업 관계자 30여명과 무역 전문가, 관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10월 박람회 수출상담회에서 3천304만달러(약 463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은 10월 진행된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모습. <전남도 제공>

앞서 박람회장은 지난 10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25 국제농업박람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17개 국가 50개 사 바이어와 국내 100개 수출기업이 참여한 상담회에선 총 639건의 상담이 이뤄진 결

과, 총 3천304만달러의 수출협약을 했다.

특히 전남 대표 농산물인 ‘새청무 쌀’이 277만 달러(약 40억 원)의 협약을 이끌어내며 세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3천27만달러(약 423

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멕시코·캐나 등 신규 시장 바이어 발굴과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영국 바이어와의 거래 규모 확대 등 실질적 판로 다양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컨설팅은 한문철 전남식품수출협회장의 협약

이후 수출기업 준비 사항, 김호진 엘피스코퍼레이션 이사의 유럽시장 트렌드와 수출 준비 전략 등 실무 중심의 특강으로 준비됐다.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통관과 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민형 관세사(관세법인 더블유) 등 분야별 전문가가 멘토로 나선다.

행사 첫날인 4일 바이어 응대 전략 수립과 국가별 수출 프로세스 점검 교육이 진행되고, 5일 엔 기업별 1대1 맞춤형 수출 멘토링이 이어진다. 멘토링에서는 협약을 한 바이어와의 교신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선적 서류 준비 등 단계별 밀착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관수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협약이 수출의 첫 단추라면 실제 계약과 선적은 수출의 완성”이라며 “사후 컨설팅을 통해 우수 농식품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약속을 실제 성과로 실현하고 나아가 전남 농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12월 친환경농산물 ‘무안 배추’

식이섬유·칼슘 풍부 대표 국민 채소
홍갑표 농가 6.5㏊ 재배 年520t 생산



전남도가 12월의 친환경농산물로 ‘무안 배추’를 선정했다.

배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K, 칼슘이 풍부해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항산화 기능에 효과가 있는 대표적 국민 채소다. 특히 김강철에 수요가 집중하는 주요 계절 농산물로 꼽힌다.

사를 시작으로 40여년간 친환경농업을 지켜온 대표적 선도 농가다. <사진>

1987~1988년 일본·대만 견학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우고 조생양파·고추·감자 3모작으로 지역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했으나 가격 변동으로 수익 불안정이 지속되자 2017년 친환경 양배추로 작목을 전환했다.

2023~2024년 양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자 친환경 배추 재배 면적을 4.3㏊까지 대폭 확대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해는 총 6.5㏊ 면적에서 친환경 배추 약 520t을 생산해 서울 친환경 학교급식에 판매,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양시원 기자>

전남, 최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 입증…농식품부 경연 5개 부문 수상

전남도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 경연대회’에서 총 8개 부문 중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 조사료(풀사료) 생산지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우수상 경영체 61개소가 참여했다. 전남에서는 우수상 영암 꽃메영농조합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장흥 금곡영농조합법인(농촌진흥청장상)·장흥 금곡영농조합법인(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상)·신안 시골아재영농조합법인(조지조사료학회장상)·나주 동산조사료영농조합법인(조사료협회상)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전국 조사료 재배 면적의 36%인 6만㏊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조사료 주산지로서 매년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고품질 조사료 생산 역량을 증명했다. <양시원 기자>

‘새로운 전남농협인상’ 3명 선정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안양농협 오승자 상무·전남양곡재단 백영철 단장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2025 새로운 전남농협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남지역본부는 3일 “최근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협 조직 변화에 혼신해 온 농협인 3명을 선정해 행사를”고 밝혔다. <사진>

올해 처음 제정된 ‘새로운 전남농협인상’은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협인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 ▲참신한 아이디어 및 디지털 소통 역량 ▲농축협과의 협력도 ▲농업인 복지 증진 노력 ▲지역 공동체 기여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전남 관내 중앙회·농축협·제조사 등 범농협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 안양농협 오승자 상무, 전남양곡재단 백영철 단장 등 3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룡농협 김형중 조합장은 신용사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넘어 경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별 공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과수·시설 농가의 착과 안정성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에는 15개 농협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양농협 오승자 상무는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22년 연속 보험 연도대상을 수상해 농협

최장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특히 누적 시장금 6천만원을 지역 장학금 및 공동체 사업에 기부하며 개인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남양곡재단 백영철 단장은 ‘농심천심’ 운동을 디지털 홍보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농협의 공익 캠페인 확산에 앞장섰다. 직접 제작한 농심천심 음원과 통화연결을 콘텐츠는 전남농협이 전국 홍보 흐름을 주도하는 상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공일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심 중심의 실천과 디지털 소통, 공동체 환원을 실현한 전남농협인을 발굴하게 돼 뜻깊다”며 “수상자들이 보여준 변화와 혁신이 전남농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